

교육부 대학기관평가인증 획득...의료보건·항공서비스·미용 등 특성화

광주여대 ‘스마트 여성’ 인재 양성 요람



여성시대 선도

광주여대(총장 이선재·오른쪽에서 세번째)는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전국 7개 여자대학 중 취업률의 1위를 기록하며 최고의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다.

광주여자대학교는 지방 유일의 여자대학이다. 한때 국내 여자대학은 서울에 6곳, 지방에 4곳이 있었으나 6년 전 광주여대만 남고 지방의 3곳이 일반대로 바뀌었다.

광주여대가 지방의 명문 여대로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전국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항공서비스학과, 미용과학과와 같은 실용학문 계열을 특성화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회에 기여하며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겠다는 ‘마음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강한 지성과 아름다운 감성을 갖춘 스마트 여성 인재를 양성한 것도 큰 몫을 했다.

광주여대(총장 이선재)는 ‘한강 이남의 유일한 여자대학교’로 만족하지 않고, 치열한 생존경쟁으로 변한 한국 대학의 환경을 이겨내기 위해 ‘강인한 지성과 아름다운 감성을 지닌 여성 인재’를 교육, 사회의 엘리트로 배출하는 ‘커리어우먼 사관학교’, ‘창의적 전문지식을 갖춘 스마트 여성인재 양성’을 대학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다.

◇**실용학문 기반으로 최고의 취업률 기록**=광주여대는 의료보건 분야를 주축으로 하는 실용학문 위주의 대학 특성화를 개교때부터 구축해 4년제 대학교 중 최고의 취업률을 자랑하는 대학이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년 연속 60%를 훨씬 넘는 높은 취업률로 광주지역 4년제 대학교 중 취업률 1위를 기록했다. 또한 전국 7개 여자대학교를 대상으로 한 취업률은 2010년 이후 취업률 집계까 끝난 2014년까지 5년 연속 출근 1위를 기록해 전국 여자대학교 중 최고의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주여대는 2014년과 2015년 2년 연속 신입생 충원률 100% 기록하고 신입생 모집 경쟁력에서 4년 연속 평균 5대1 이상을 기록함으로써 지역대학 중 고교 졸업생에게 가장 입학하고 싶은 대학임을 입증했다.

항공서비스학과와 경우 단일학과에 1000여명이 지원함으로써 전국 최고의 스튜어디스 및 항공사 취업 명문학과로 명성을 자랑하고 있다. 광주여대는 2014년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평가원이 엄정한 평가를 통해 부여하는 ‘2014년도 대학기관평가인

실용학문 강화 취업률 60%대 ‘마음교육현장’ 선포 인성교육 커리어 우먼 사관학교 명성 양궁여제 기보배·최미선 배출도

증’을 획득해, 우수한 교육시스템과 교육여건을 갖추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또한 광주여대는 세계 최고의 명문 여자양궁부를 대학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운영중이다. 국가대표 양궁 코치를 역임한 김성은 감독을 주축으로 런던올림픽 양궁 금메달 2관왕에 빛나는 기보배 선수를 배출했으며, 현재 초등특수교육과 1학년에 재학중인 양궁 국가대표 최미선 선수는 한국 양궁의 미래를 짊어질 떠오르는 샛별이다.

◇**뷰티교육 특성화**=광주여대는 2015년 광주시로부터 ‘해외교육생 대상 뷰티아카데미 개설 운영 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받았다. 이 사업은 광주여대의 미용과학과 등 우수한 뷰티 교육 환경 및 인적 자원을 활용해 독창적이고 경쟁력 있는 뷰티교육 관광을 특화함으로써 광주시의 뷰티교육 및 문화관광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해외 교육생 대상 뷰티 아카데미 개설 운영 사업은 광주여대 주관으로 추진되며, 광주시의 뷰티 특화 사업 발굴 및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우수한 한국의 미용교육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됨으로써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광주여대는 2015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기관 광주지역 유일 선정, 2014 여대생커리어개발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 2014 보건복지부 뷰티아카데미 우수 교육기관 선정 등 전국 최고의 성과와 경쟁력으로 대한민국 여성교육 발전에 기여해 왔다.

또 광주여대는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공식 파트너 대학으로 대학 캠퍼스 내에 유대회 조직위원회에서 건립한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을 갖추

었으며, 경기 일정을 완벽하게 진행해 국제대회 성공에 기여했다.

◇**대학 최초 마음교육, 사회봉사 활동 강화**=대학 최초로 전체 구성원이 함께하는 마음교육 현장을 발표하고, 전체 재학생 대표가 참가해 마음교육 선서식 행사를 갖고 본격적인 마음교육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에 지난 3월 전체 교직원 및 재학생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교 23주년 기념식을 갖고 기념식 후 마음교육 현장 발표식 행사를 거행했다.

광주여대가 발표한 마음교육 현장은 학생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좇지 말고 모두가 더불어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마음나눔’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광주여대의 ‘마음교육’을 총괄·진행하는 마음나눔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을 포함한 재학생 및 교직원들이 ‘마음나눔 우체통’을 통해 마음나눔편지를 교환하고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등을 이용해 각자의 마음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학의 지역 봉사 활동은 인성 교육의 토대가 되고 있다. 광주여대는 ‘테마가 있는 사회 봉사’를 주제로 2009년부터 매년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2013년과 2014년 11월에는 교내 국제회의장에서 광산구 노인 200여 명, 다문화 가족 및 고려인 200여명을 각각 초청해 ‘사랑 나눔 한마당 잔치’를 열었다.

또한 사회개발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졸업생, 재학생들은 광산구 희망나눔자원단과 함께 7년 전부터 광산구 우산동 일대 홀몸 노인 가구에 연탄을 배달할 것을 계기로 매년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을 8년째 벌이고 있으며 2014년까지 광산구 송정1동 일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와 홀몸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77가구가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연탄 8만여장을 배달했다.

이선재 광주여대 총장은 “대학교육기관은 지역사회에 여러 방법을 통해 기부와 기여를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광주여대는 교육과정과 모든 행정서비스를 학생 ‘취업’과 ‘인성 함양’에 맞추고 있다”며 “여자대학 특유의 감성과 지성을 갖춘 여성 리더를 배출해 명문 사립으로 우뚝 서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호남대 국제교류본부, 유학생과 중국시장 공략한다

5개월간 중소기업청 온라인마케팅 시범사업 참여

호남대학교 국제교류본부(본부장 박상령)가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과 함께 중국 내수시장 공략을 위한 중국 유학생 연계 지원 중기 온라인마케팅 지원 사업에 참여한다.

광주·전남중기청과 사업수행기관 솔라피데가 협력해 진행되는 이번 사업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국제교류본부는 중국 유학생에 해당 사업에 대해 알리고 지원단을 선발하며, 유학생과 기업 간 만남의 장 형성은 물론 온라인 홍보 교육장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단으로 선정된 중국 유학생들은 타오바오, 위챗(웨이신), 웨이보, QQ, 알리바바, 바이두 등 주요 온라인 전자상거래(e-mar-

ketplace) 사이트에 지역 중소기업 제품을 등록해 홍보하고 상담 지원 업무를 통해 중국 내 잠재고객에 우리 기업 및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 기업 경쟁력을 강화에 기여하는 물론 해외마케팅 및 무역 실무와 관련된 실질적인 경험을 하는 기회를 갖는다.

사업은 이달부터 2016년 1월까지 5개월 동안 시범사업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호남대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 중 중국 온라인 마케팅 활동을 희망하는 유학생 지원단을 최대 20명까지 추후 모집할 예정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기독교간호대, 대학구조개혁평가 A등급...전국 전문대 7위

기독교간호대학교(총장 이숙희·사진)가 2015년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최고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이번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는 135개 전문대학중 14개 대학이 A등급을 획득했는데, 이중 기독교간호대는 전국 7위에 이름을 올렸다.

기독교간호대는 지난 1968년 개교 이래 간호학 단과만을 특성화·전문화해 올해 중장기 발전계획 및 비전 2020년 선포식을 가졌다.

2014년부터 교육부의 기관인증평가, 교원

양성평가, 특성화 전문대학육성사업(5년) 선정,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간호교육인증평가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숙희 총장은 “간호대학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학교측과 동창들의 관심, 교직원과 학생들의 부단한 노력이 평가 결과로 나타났다”면서 “2년후 개교 50주년을 앞두고 대학 환경을 더욱 개선하고 행·재정 및 교육역량을 강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또 “지역사회 발전과 인류사화에 공헌하는 글로벌 기독교간호대학교로 발전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자격증으로 취업문 열자”

동강대 호텔관광과, 국외여행인솔자·바리스타 과정 진행

동강대학교(총장 김동욱) 호텔관광과가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자격증 특별 지도에 나섰다.

동강대 호텔관광과는 이달부터 2학년을 대상으로 ‘국외여행인솔자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참여 학교인 호텔관광과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을 위해 정규수업 외 특별 강의로 ‘국외여행인솔자 과정’ 및 ‘바리스타 자격 과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호텔관광과 교수들은 자격증 이수를 위한 국외여행인솔 실무 영어·일어 등 외국어 관광법규 세계관광문화와 국외여행 안전관리 등의 교육을 오는 10월 7일까지 총 84시간 진행한다.

또 호텔관광과는 7월부터 1학년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자격증 반을 운영한다. 9월 한달간 바리스타 필기시험에 대비하고 필기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실기시험 반을 꾸릴 예정이다.

/채희종기자 chae@

7층 상가 건물 매매 <북구 우산동 구호전 사거리>



- ✓ 1층 (커피숍 입점완료)
- ✓ 2~5층 (사우나, 주택)
- ✓ 6~7층 (설계사, 건설사)

월수익 **950만**
사우나 직접 운영시 1,800만

매가 **14억 5천** (보 2억, 융 6억)

010-7384-7800 / 010-6670-9800